

## 악화되는 정유사 경영실적

**한** 때 정유산업을 가리켜 「땅짚고 헤엄치기」,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석유산업 초기의 얘기일 뿐, 현재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국내 정유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물가관리 우선정책과 엄격한 이익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어 왔다. '90년대 들어 93년에 170억원(정유부문)의 소폭 흑자를 냈을 뿐 해마다 적자를 보이고 있다. 유가연동제가 실시된 '94년 이후에도 정유부문의 경영실적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유가연동제 공식상 원가항목들이 과소 또는 지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에도 정유 5사는 정유부문에서 179억원의 적자(세후)를 기록했다. 또한 정유부문 세전 순이익은 정부가 허용해준 2,433억원(세후)에 크게 못미친 314억원에 머물렀다. 그결과 정유부문의 매출액이익률은 1.6%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제 정유산업이 「속빈 강정」이란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96년도에 정유사 경영실적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유가 반영의 기준이 되는 비용과 정유사 실적 비용간의 괴리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 유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유가 반영 원유 FOB의 경우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중·경질유 및 고·저유황유간 상대가격 변화와 국내 수요의 경질화로 인한 국내원유 도입구성비의 변화는 94년도에 도입된 추정치산정 방식과 실제 원유도입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국내 유가에 실효도입가격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96년중 약 3,373억원의 손실 발생요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원유 수송운임도 유가연동제 공식상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원유 1배럴당 72센트가 반영되어 왔으나, 실제 운임 지급단가는 94센트에 이르러 1,231억원의 추가손실을 가져왔으며, 환율 급상승에 따른 환차손 증가도 정유사 경영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국내 정유사들은 정유부문의 손실이 확대되더라도 석유화학 등 관련산업의 수익증대 등으로 적자폭을 줄여왔지만, '96년중 석유화학 기초제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한 반면, 원료인 나프타의 국제가격은 강세를 지속함으로써 석유화학부문의 흑자가 대폭 감소하여 정유사 전체의 경영실적 악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정유업계는 취약한 경영구조를 개선하지 못한채 올해부터 유가자유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정유사들의 수익구조는 유가자유화로 인한 시장경쟁의 심화로 앞으로 더욱 악화될 소지가 크다. 이제 정유업계가 살 길은 지구노력 뿐이다.

정유사 및 유통업계는 자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유통부문의 과당 경쟁을 지양하여 비정상적인 유통비용부담을 절감해야 하며, 막대한 자금이 소모되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코스트 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해 기업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품질과 서비스 향상 등 소비자 이익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여 고객만족 경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익의 증대를 위한 지구노력이 필요하다. <석유협회 홍보팀> 